

舊)영동선 지그재그 철도노선, 국내 최초 철도테마파크로 재탄생

- 삼척 하이원추추파크, 10월 24일 그랜드 오픈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주)강원랜드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주)하이원추추파크에서 조성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철도테마파크 하이원추추파크가 지난달 24일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하이원추추파크는 '12년 6월 영동선 철도 이설로 운행이 중단된 도계역~동리역간 舊)영동선 철도시설부지에 조성된 테마파크로 관광가치가 높은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구간(1)과 강삭철도(2)를 재현했고 관광열차, 인클라인철도, 레일코스터, 미니트레인 등 다양한 철도 체험시설과 열차펜션 등 숙박시설, 캠핑장, 부대편의시설을 두루 갖췄다.

- 1) 열차가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그재그로 움직여 기울기를 해결하는 철도선로방식
- 2) 급구배지에 설치한 전동기와 강제 와이어(wire)로 차량을 견인하는 방식

본부는 낙후된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舊)영동선의 근대 철도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공기업을 (주)강원랜드와 사업을 추진했으며 공기업간의 최초 협력사업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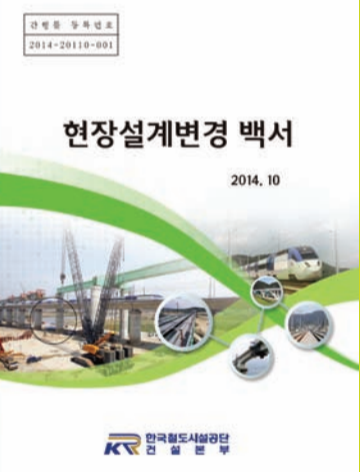
특히 테마파크가 위치한 곳은 철도체험장 뿐 아니라 미인계곡 등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으로 유명한 연간 8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하이원추추파크가 개장되면 135명의 직접고용 및 투자와 운영에 따른 956억원의 부가치 창출 등의 효과와 더불어 공단은 30년간 점용료 등 약 60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해 철도건설에 따른 부채상환으로 재무건전성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하이원추추파크 개요 -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일대 철도시설부지 76,216㎡ - 사업 내 용: 인클라인철도, 레일코스터(레일바이크), 미니열차, 관광열차,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등 - 사 업 비: 753억원 (사업비 655억원 + 사업관리비 98억원) - 사업시행자: (주)하이원추추파크 - 사업 기 간: 2013.5~2014.10(건설) / 2014~2044(운영, 점용허가 후 30년)
		

철도건설 '설계변경 최소화'로 '사업 효율성' 업(Up)!

- 「현장 설계변경 백서」 발간 및 전 직원 공유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



현장설계변경 백서
2014. 10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달 20일 철도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전 철도 현장에서 공유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설계변경 백서'를 발간했다.

'현장설계변경 백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설계변경 내용을 사업별(1), 원인별(2), 등급별(3)로 분석함은 물론, 지역여건 및 수송수요 변화를 감안, 정거장 시설규모를 축소해 경제성을 확보한 사례, 구조물 설치 시 유로폼 거푸집의 적용을 가능한 확대해 경제성과 시공성을 확보한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 사업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민자/수탁사업 등
- 2) 원인별 : 현장상태 상이, 신기술/신공법 적용, 사업계획의 변경 등
- 3) 등급별 : 중요등급, 일반등급, 경미등급

또한 설계단계부터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철도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은 설계단계부터 기술심의, 자문, 설계VE, 심사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최적의 철도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설계변경 자료를 분석해 전 현장에 공유함으로써 철도건설의 체질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철도의 방음시설, 문화 예술적 가치로 재탄생!

- 개선된 방음벽으로 1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무채색의 단조로운 철도노선 인근 방음시설을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국민에게 보다 더 친숙한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담은 방음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변에 설치 운용 중인 방음벽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채색 방음벽 381개소와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방음벽 47개소에 대해 우선 급년 설계대상 사업부터 반영, '15년도에 140억원을 투자해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본부는 방음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미적 감각과 지역문화 예술성을 가미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도색, 벽면녹화(넝쿨식물 식재), 친환경 설계 등을 반영해 방음시설을 아름답게 바꿀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철도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고, 일부 시설은 시야를 막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부 관계자는 "방음벽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숨겨져 있던 도시경관의 새로운 잠재적 아이덴티티 발견으로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분	넝쿨식물(벽면녹화) 또는 도색	친환경 설계
사진		
디자인 컨셉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불거리를 도입하여 방음벽에 생명력을 담음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한 친환경적 방음벽 디자인 설계
개량 대상	도시 무채색 방음벽	노후 방음벽

201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가

- 취업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정보 제공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 임신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채용정보 제공 및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매년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일자리 나누기에 함께해 온 공단은 올해에도 명예퇴직·단기근무퇴직조건 승진제 등 채용여력 확보 노력을 통해 52명의 채용형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왔다.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단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보여준 저력을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며 스펙을 초월한 채용, 고졸사원·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시 전형단계 간소화, 인턴 경험자에 대한 우대 등 구직자의 다양한 의견(VOC)을 반영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 안전관리체계 도입 위한 「안전토론회」 개최

- 발주처와 협력업체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안전관리체계 Level-Up -



안전품질실(실장 석중근)은 지난달 28일 대전 본사 21층 회의실에서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통신 분야의 안전담당 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안전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선진 안전관리체계 도입, 국내·외 안전 우수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발주처인 공단과 협력업체간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수 안전관리 하도급업체 인센티브제도(원인파트너십), 사고예방을 위한 경고제도 운영(신호등 관리체계), 고위험 작업 사전 허가제, 협력사 경영진과 함께하는 합동점검, 건설현장 환경보건안전(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Risk Management 등 철도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공단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사후조치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단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내부검토 후 즉시 이행 조치하고 공단은 올해까지 철도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선진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큰 보람 안전은 실천, 품질은 약속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철도 취약개소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제적·예방적 안전 대책을 추진해 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형고속열차, 호남고속선에서 본격 시운전 착수

- 지난달 21일부터 호남고속선 전 구간(180km)에서 시행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지난달 21일부터 호남고속선 전 구간(180km)에서 신형고속열차에 대한 시운전에 본격 착수했다.

본부는 사업비 7천360억원(국고 및 공단 각각 50% 부담)을 투입해 (주)현대로템에 총22편성(220량)의 고속차량을 발주하였으며 제작완료된 고속차량을 호남고속선 전 구간에서 일일 최대 4편성 이상 시운전을 시행해 차량성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제1호 열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부고속선 등 기존 운행선로에서 시운전을 착수해 열차의 주행 및 제동시험 등 127개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을 완료했고 나머지 열차도 순차적으로 운행선로에서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본부는 시공 완료단계인 호남고속선 전 구간에서 시속 300km로 고속열차를 주행하며 열차성능 뿐 아니라 신설 선로의 안정화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계획으로 시운전이 완료된 차량은 철도공사와 합동인수검사를 거쳐 호남고속선 및 수도권고속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신형고속차량은 KTX산천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한 차량으로써 호남고속선 시운전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열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3월경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용산)에서 광주순경까지 현재 2시간 39분에서 1시간 33분(1시간 6분 단축)에 운행이 가능해 국민 교통편의 증대는 물론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